

'위드 코로나'에도 광주 취업자 줄었다

지난달 증가세 꺾여 1000명 감소 제조업은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자영업 감소폭 10여년만에 최대 전남 취업자수 2만3000명 증가 오미크론 출현으로 고용절벽 우려

단적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접어들었던 지난달 광주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 도 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세 번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연말연시 고용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광주는 1000명 줄고, 전남은 2만3000명 증가했다.

광주 취업자는 지난 10월 2000명 늘더니 11월

반락했다. 전남은 지난 10월(2만8000명)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달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광주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전년보다 3000명 줄며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으며, 농업·임업 및 어업(-2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1000명) 등도 취업자가 줄었다.

택배·배달 부문 관련 운수·전기·통신·금융업 취업자는 지난달 9000명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공일자리 부문과 연계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도 6000명 늘었다.

전남에서도 13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건설업 취업자는 8000명이나 줄었다.

전남지역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산업은 농업·임업 및 어업(1만5000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1만3000명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만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00명 ↑), 전기·운수·통신·금융(3000명 ↑) 등이었다.

광주는 전통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자영업자의 고용 타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광주 자

영업자는 전년보다 1만4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광주 자영업자 감소폭은 지난 2011년 3월(-1만5000명)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판매 종사자 취업자는 지난해 10월(-4000명) 이후 매달 감소세를 지속해왔다. 지난달에도 판매 종사자 4000명이 줄었다.

전남에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4000명 감소한 반면 판매 종사자는 3000명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모두 사무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는 지난달에만 광주 6000명·전남 1만7000명 등 2만3000명이 증가했다. 단순노무 종사자 증가세는 광주 16개월·전남 9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최악으로 기억되는 경기 여파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감소폭은 줄었다"며 "광주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이맘때 다소 풀렸던 것과 비교해 위드 코로나 시기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고용감소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벤처·ICT·SW 기업인의 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지난 14일 '2021 광주·전남 벤처기업인 및 ICT/SW 기업인의 밤'을 개최했다.

올해 유공자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론테크 정원일 전무를 비롯해 광주

·전남지역 벤처 및 ICT/SW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총 25명이 수상했다.

또 이날 특강에서는 김정대 호남대 교수가 '좋은 생각이 성공을 이끈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홍삼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국세청 내년부터 8개 업종 추가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착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7일 이내(내년 1월 1일부터는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연간 누적 기준 최대 200만원)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내년 대상 업종은 총 95개로 늘어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수출

2개월 연속 50억달러 돌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15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 증가한 51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75.3% 증가한 45억55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억96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10월(54억9200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두 달 연속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올해 7월(53억8700만 달러)이 처음으로, 8월(51억2200만 달러)에도 50억 달러를 넘었다. 올 9월(48억8100만 달러)을 제외하고 하반기 내내 최근 5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 중이다.

광주는 반도체와 가전제품이, 전남은 화공품과 석유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11월 누계 수출액은 531억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7% 증가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4억4000만 달러로, 반도체(36.8%)·가전제품(14.6%)·기계류(14.0%)가 늘고 수송장비(8.6%)·타이어(0.2%)는 감소했다.

전남은 전년 대비 무려 67.4% 증가한 37억 4700만 달러를 기록, 주력 산업 품목인 화공품(79.9%)·석유제품(111.3%)·철강제품(43.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사랑의 김장' 담그기



광주은행 송중옥(오른쪽) 은행장과 올 하반기 신입행원 30여 명이 지난 14일 동구 운림동 무동육아원에서 소외계층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직접 담그고 후원금 700만원을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사학연금 '사회보장 데이터 활용방안' 포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16일 나주 본사에서 '미래사회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학연금이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가 공동 참여한다.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3대 공적연금과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5개 기관이 모여 결성했다.

이날 포럼 주제는 '사회보장기관의 데이터 활용 가치 증진과 정책적 활용'이다.

이날 류근관 통계청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권오병 경희대 경영대학장이 강연에 나선다.

이후 사학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관 간 공동대응 방안의 모색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89.39 (+1.44)
↑ 코스닥	1003.52 (+0.71)
↑ 금리 (국고채 3년)	1.808 (+0.024)
↑ 환율 (USD)	1185.20 (+2.60)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